

# 《西廂記》 곡문 번역본 고찰과 각종 필사본 출현의 문화적 배경 연구\*

劉承炫\*\*, 閔寬東\*\*\*

< 목 차 >

1. 들어가며
2. 곡문 번역본의 판본들
(1) 순 한글 번역
(2) 국한문혼용 번역
(3) 활자본
3. 각 계열의 번역 양상
4. 각종 《西廂記》 필사본과 곡문 번역본 출현의 문화적 배경
5. 나오며

## 1. 들어가며

희곡 《西廂記》는 조선시대에 소설 5대기서 중에 《金瓶梅》나 《紅樓夢》보다 더 많은 중국 판본이 유입되었다.1) 조선정부에서는 《朱子語類》를 해독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語錄解》를 발행하였는데, 당시의 지식인들이 중국의 주자학 서적에 나오는 ‘白話’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만든 일종의 사전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0-322-A00128).

\*\* 慶熙大學校 比較文化研究所 研究員(주저자).

\*\*\* 慶熙大學校 中國語學科 教授(교신저자).

1) 다음 책의 목록을 확인한 결과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민관동·장수연·김명신, 《韓國 所藏 中國通俗小說의 版本目錄과 解題》, 학고방, 2013.

이라고 할 수 있다. 나중에는 희곡으로는 유일하게 <西廂記語錄>이 만들어 지는데, 이는 소설 <水滸誌語錄> · <西遊記語錄> · <三國誌語錄>과 어개를 나란히 하는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西廂記》의 중국 판본(1912년 이전)은 80여 종이 넘고, 필사본은 90여 종이 넘으며, 어록 또한 20여 종에 이른다.<sup>2)</sup> 이를 보면 《西廂記》가 조선시대에 얼마나 유행하였으며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西廂記》의 조선 유입에 관련해서는, 판본 위주의 연구가 민관동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sup>3)</sup> 이창숙은 조선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를 다루었다.<sup>4)</sup> 이외에도 희곡 전반의 유입에 대한 연구 중 하나의 항목으로 다룬 연구들도 있다. 《西廂記》 '번역 수용'에 대해서는 김학주의 선구적인 연구가 있었고,<sup>5)</sup> 근래 들어 김효민과 국문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김효민은 번역본 전반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개별적인 판본들에 대해서 연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sup>6)</sup> 국문학자들의 연구로는, 20세기 초에 활자본으로 출판된 4종에 대한 연구가 있고,<sup>7)</sup> 연민 이가원이 소장하였던 소설체 개역본에 대한 연구가 있다.<sup>8)</sup>

조선시대 번역 혹은 개역된 중국희곡으로는 《荊釵記》 · 《伍倫全備記》 · 《西廂記》 3종이 남아 있다. 《荊釵記》는 한문소설 형식의 <王十朋奇遇

2) 민관동 · 유승현, 《韓國 所藏 中國古典戲曲(彈詞 · 鼓詞) 版本과 解題》, 학고방, 2012, 69-101쪽. 이 책이 출판된 후에 필자는 충청권 출장을 통해서 4종의 《西廂記》 판본을 더 발견하였다.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 서원대 박물관 · 개인소장자 전재구가 필사본을 소장하고 있으며, 개인소장자 전재하는 석인본을 소장하고 있다.

3) 민관동, <《西廂記》의 국내 유입과 판본 연구>, 《中國小說論叢》제31집, 2010.

4) 이창숙, <《西廂記》의 조선 유입에 관한 소고>, 《大東文化研究》제73집, 2011.

5) 김학주, <조선 간 《西廂記》의 주석과 연해>, 《조선시대 간행 중국문학 관계서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6) 김효민, <朝鮮讀本 《西廂記》의 異本 실태 및 유통 양상>, 《中國語文論叢》제46집, 2010. <구한말 《西廂記》 국문 改譯本의 개역 양상 및 특징 - '존경각본'과 '규장각본'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통권84호, 2011. <고려대 소장 《西廂記諺抄》의 번역 양상과 특징>, 《中國語文論叢》제54집, 2012. <'이가원본'을 통해 본 조선후기 《西廂記》 한글번역의 수용과 변용>, 《中國語文學誌》제54집, 2012.

7) 이기현, <舊活字本 《西廂記》 研究>, 《우리文學研究》제26집, 2009.

8) 강동엽, <이가원 역주 《서상기》에 대하여>, 《淵民學誌》제13집, 2010.

記>로 개작되기도 하였으며, 또한 한글소설 형식의 <왕시봉던>으로 번안되기도 하였는데 둘 다 필사본으로 남아 있다. 《五倫全備記》는 희곡으로서는 유일하게 한글 번역본이 조선 정부에 의해 출판되었다. 《五倫全備記》는 1696년(숙종22년)에 教誨廳에서 언해가 시작되어 1720년(숙종46년)에 《五倫全備諺解》 8권으로 간행되었다. 이 번역본은 본문의 노래(曲)부분은 생략하고 대화부분만을 번역하여 중국어회화 학습교재로 사용하였다. 이에 비해 《西廂記》는 국가적 필요 때문이 아니라 독자들의 애호에 의해 유행하였으며, 여러 형태의 번역본들이 다수 남아 있다. 위에서 밝혔듯이 현재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는 먼저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西廂記》의 곡문 번역본에 대해 고찰하고 나서, 여러 형태의 필사본들이 생산된 문화적 배경과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곡문 번역본의 판본들

역대로 중국 희곡은 노래인 曲이 위주였고, 극작가의 창작에 있어서 曲은 작품의 문학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배우도 노래를 잘해야 훌륭한 배우로 인정받았다.<sup>9)</sup> 《西廂記》는 元代 王實甫가 읽는 희곡으로 창작한 잡극인데, 잡극은 科·白·曲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科는 지문에 해당하며 동작을 지시하고, 白은 대화 위주의 대사이며, 曲은 노래이다. 《西廂記》 역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노래인 曲이 중심이 되며 스토리를 전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西廂記》의 여러 형태의 번역본 중에서 노래가사인 曲文만을 번역한 것들이 있는데, 전체를 세 계열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필사본 두 가지 계열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한글로만 번역된 것이 있고, 둘째 한글과 한문을 혼용하여 번역한 것이 있다. 셋째는 활자본으로 1906년 이전의

9) 고려대 중국학연구소, 《중국문학의 즐거움》, 차이나하우스, 2009. 138쪽.

필사본을 토대로 하여 출판된 《註解西廂記》가 있다. 먼저 이 세 가지 형태의 곡문 번역본들의 목록과 판본의 특징을 제시하고 나서 그 구체적인 번역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 (1) 순 한글 번역

書名	出版事項	版式狀況	一般事項	所藏處/所藏番號
西廂記	王實甫(元) 著,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3冊, 筆寫本, 24×15.5cm		國立中央圖書館 d1092-25
西廂記	王實甫(元) 原著,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1冊(缺佚), 筆寫本, 22.7×15.5cm, 四周單邊, 半郭: 18.1×12.7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頭註, 上下向黑魚尾	漢韓對譯本, 表題: 第六才子書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일사 895.12 Se66
西廂記	王實甫(元)著, 發行事項 不明	全4卷2冊(零本1冊), 筆寫本, 24.2×17cm	卷首題: 花月琴夢記, 所藏本中 卷之3,4의 1冊 以外 缺	安東大學校(明 谷文庫) 古明 822.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西廂記》는 春·夏·秋·冬 4책 중에서 제2책인 ‘夏’가 결절이다. 겉표지 좌측상단에는 서명을 ‘西廂記’라고 쓰고 작은 글자로 각각 ‘春’·‘秋’·‘冬’이라고 써서 몇 책인지 표기하였다. 또한 겉표지 우측상단에 ‘彛敍堂藏’이라고 써져 있는데, ‘彛敍堂’은 堂號인 것 같지만 그 구체적인 소장자는 아직 찾지 못하였다. 첫째 쪽은 ‘西廂記卷之一’로 시작하고, 다음 행에는 ‘聖嘆外書’ 그 다음 행에는 ‘序一 慟哭古人’이라고 쓰고 이 序의 원문을 옮겨 적었다. <慟哭古人>이 끝난 후에는 이어 쓰지 않고 나머지 장을 여백으로 처리하였다. 이어서 ‘序二 留贈後人’이 앞의 序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는 <會眞記>가 있는데 제목 아래 작은 글씨로 ‘唐元稹’이라고 써져 있으며, 그 필사의 형식은 앞의 序와 같다. 세 편의 글 모두 현토 없이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본문의 맨 처음에는 서명을 쓰지 않고, ‘元人王實甫著’라고 시작된다. 이어서 ‘題目總名’이 나오고 다음에는 ‘題目正名’이 나오며, 본문은 ‘一之一驚艷’으로 시작된다. 본문도 현토가 없이 그대로 옮겨 적었으며, 곡문은 구절구절 끊어 원문을 적고 이어서 한글 번역을 적었다. 번역은 원문에 비해 작은 글씨로 써져 있으나 2행이 아닌 1행로 되어 있다. 번역문은 한자를 혼용하지 않고 모두 한글로만 번역하였다. 이 필사본은 계선이 있는 용지를 사용하였는데, 이 계선 위의 공간에 단어의 뜻을 달아 놓았다. 해당 단어는 큰 글자로 되어 있으며, 뜻풀이는 2행의 작은 글자로 되어 있다. 단어의 뜻풀이는 주로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간간히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은 계열의 곡문 번역 필사본으로는 표제가 《西廂記》인 안동대 소장본이 있다. 모두 4권 2책으로 되어 있는데, 하권 1책인 제3·4권만 남아 있다. 상권이 결절이어서 ‘序’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알 수 없지만, 하권의 체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秋’·‘冬’과 거의 유사하다. 특이한 점은 內題가 《花月琴夢記》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 국립중앙도서관에 이와 똑같은 서명의 《西廂記》 필사본이 있다. 이 판본은 前·後 2책으로 되어 있는데, 번역본이 아니라 김성탄 평점본의 본문만을 그대로 옮겨 쓴 원문 전사본이다. 필자는 안동대를 방문하여 위의 목록에 제시한 《西廂記》 판본을 복사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內題가 《花月琴夢記》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西廂記》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의아해하였다. 중국의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아직까지 이런 서명의 책도 찾을 수 없었으며, 또한 《西廂記》를 이렇게 부른다는 기록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花月琴夢記》란 서명의 《西廂記》 원문 전사본을 발견하고 나서는 혼하지는 않지만 조선에서 그것을 《西廂記》의 이명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에서 국립중앙도서관과 안동대 판본 간의 차이점을 제시하였는데,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다음과 같이 원문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仙呂賞花時紅娘唱針線無心침선에마음이업서不待拈슈노키를슬희여하고脂粉香消  
연지분이어둡더룩혀도懶去添다시단장허괴를게을니허며春恨봄한이壓眉尖누썩스  
히눌니엿스니靈犀一點일점령현마음이醫可病懣」병드러파리허물누긋칠고(국립도  
서관 소장본)

仙呂 賞花時 紅娘唱針線無心不待拈脂粉香消懶去添春恨壓眉尖靈犀一點醫可病  
懣」침선의마음이업서수숫키를슬허하고연지분이어둡더룩혀도다시단장허괴를기  
얼니허며봄한이눈썩스히눌니여시니일점령현마음이병드러파리허물누긋칠고(안  
동대 소장본)

안동대 소장본은 낙질본이라서 제3본이 시작되는 <前候> 맨 처음 곡문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 두 판본 사이의 번역의 내용은 대체로 일치한다. 형식 상 다른 점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곡패를 따로 구분해서 표시하지 않은 데 비해 안동대 소장본은 테두리선으로 곡패를 표시하였으며, 또한 대역 방식도 서로 다르다. 국립도서관 소장본은 구절이나 의미 단위마다 원문을 적고 그에 해당하는 번역을 하였다. 이에 비해 안동대 소장본은 곡문 전체의 원문을 적고 나서 그 곡문을 번역을 하였다.

안동대 소장본은 소장자를 알 수 있는 판본인데, 가장 마지막 쪽에 '白南壽藏'이라고 써져 있다. 白南壽(1875~1950)는 경북 출신으로 궁내부 주사를 지냈으며, 1906년부터 경북 지역에서 항일 의병활동을 벌였던 인물이다.<sup>10)</sup> 궁내부는 왕실과 관계된 일을 하였으므로 그는 서울에서 관료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서울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의병 투쟁에 참여하였을 것이다. 필자가 경상도 지방의 여러 대학의 필사본 판본들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모두가 원문 전사본이었고 번역본으로는 이 안동대 소장본이 거의 유일하다. 그래서 白南壽 소장본은 서울에서 자신이 직접 필사하거나 혹은 남이 필사한 책을 나중에

10) 본관은 大興이다.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원구리에서 출생하였으며, 궁내부 주사를 지냈다. 1906년 의병장 申奭石(1878~1908)의 의병진에 가담하여 中軍將 및 後軍將으로서 경상북도 영덕·영양·청송·진보 등지를 무대로 항일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1906년 11월 日月山·白岩山·東大山 등지에서 유격전을 벌였다. 1907년 9월 영양 주곡에서 일본군 1중대와 격전을 치렀고, 10월 영덕 영해면의 경무서를 공격하여 일본경찰을 추방하였다. 1908년 신돌석이 순국하고 의병진이 해산되었을 때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0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99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네이버 두산백과.

고향 지역으로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의 이 소장본은 일실되지 않고 남아  
서 지금은 안동대에 소장되어 있다.

(2) 국한문혼용 번역

書名	出版事項	版式狀況	一般事項	所藏處/所藏番號
聖嘆外書 第六才子 書	王實甫(元)原著, 金聖嘆(清)編, 年紀未詳	2卷2冊(第2冊缺), 筆寫本, 29×18.5cm	表紙書名: 第六才子書	韓國學中央研究 院 D7C-8
西廂記大 全解	王實甫(元)原著,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1卷1冊(缺佚), 筆寫本, 25.5×19.5cm, 無界, 11行22字 註雙行, 無魚尾	表題: 西廂記全解, 漢韓對譯本, 用紙裏面に 官文書있음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895.12-W1847s e
聖嘆外書 第六才子 書	王實甫·關漢卿( 元)共撰, 金聖嘆(清)輯註	2卷2冊, 筆寫本, 30×19.8cm, 四周單邊, 半郭: 22×14.5cm, 有界, 10行25字 註雙行, 無魚尾	國漢文混用本, 表題: 才子書解	西江大學校 [중앙고서]성83 1 v.1,2
聖歎外書 第六才子 書(註解)	王實甫(元)著,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2卷2冊, 筆寫本, 23×21.7cm, 無界, 12行字數不定	表題: 西廂記	檀國大學校 栗谷紀念圖書館 고872.4-왕982 사

서강대 소장본 《聖嘆外書第六才子書》는 표제가《才子書解》로 되어 있으  
며, 上·下 2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체제는 먼저 서명을 《聖嘆外書第六才子書》  
로 쓴 후 <會眞記>가 실려 있고, 글이 끝난 후에는 이어 쓰지 않고 나머지  
장을 여백으로 처리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西廂辨>·<西廂序>가 차례로  
있는데, 앞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세 편의 원문에는 작은 글자로 두  
줄의 현토가 붙어 있다. 본문은 《聖嘆外書第六才子書註解》라는 제명으로 시  
작하고, 그 다음에는 ‘題目總名’이 있으며 김성탄의 평어가 두 줄의 작은 글자  
로 붙어 있다. 그 다음에는 ‘驚艷第一 老夫人開春院’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楔子>에 평어를 덧붙였다. 그리고 나서 본문이 시작되는데, 원문을 전사하고 작은 글자로 두 줄의 현토가 붙어 있다. 이렇게 첫 단락이 끝나고는 글자의 뜻을 풀이를 첨가하였는데, 본문의 단어는 큰 글자로 되어 있고, 뜻풀이는 한문으로 하였으며 두 줄의 작은 글자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첫 번째 曲文【仙呂】【賞花時】의 원문을 전사하고 작은 글자로 두 줄의 현토를 달았다. 그리고 곡문의 단어 뜻풀이가 있고, 이어서 곡문의 번역이 있는데 이 번역은 한자와 한글을 섞어 썼다. 이하의 체제는 대체로 이와 같으며 곡문의 번역은 한자와 한글을 섞어 쓴 것도 있고, 순 한글로만 된 것도 있다. 특이한 점은 제16회는 원문을 옮겨 적고 현토를 달았으며 단어 뜻풀이만 해놓고 곡문을 번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전 15회까지는 계선이 있는 용지를 사용하였으나, 제16회는 계선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였다. 필사자는 15회까지 정성 들여 필사하다가 마지막 16회는 번역 없이 급하게 원문과 단어풀이만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계열의 번역본 중 하나는 장서각 소장본인 《聖嘆外書第六才子書》인데, 乾·坤 2책 중에 제1책인 乾책만 남아 있다. 맨 처음에는 《聖嘆外書第六才子書》라는 서명을 쓰고, <會眞記>·<西廂辨>·<西廂序>·<慟哭古人>·<留贈後人>·<西廂記續書>를 여백을 두지 않고 차례대로 원문을 옮겨 적었다. 서강대본과 달리 <慟哭古人>·<留贈後人>·<西廂記續書>가 첨가되어 있으며, 또 다른 점은 원문에 현토를 달지 않았다.<sup>11)</sup> 본문의 체제도 서강대본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원문에 현토를 달지 않았다. 이 계열 중 또 다른 하나는 단국대 소장본인 《聖嘆外書第六才子書》인데, 모두 乾·坤 2책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서강대본과는 달리 표제는 《西廂記》로 되어 있는데, 이는 위에 덧붙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나중에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필사본의 체제는 서강대본과 완전히 동일한데, 다른 점은 <會眞記>·<西廂辨>·<西廂序>는 제1책의 앞부분에 전사

11) 김효민, <朝鮮讀本 《西廂記》의 異本 실태 및 유통 양상>, 《中國語文論叢》제46집, 2010, 442-443쪽.

하였고, <慟哭古人> · <留贈後人> · <西廂記續書>는 제2책의 뒷부분에 전사하였다는 것이다.

### (3) 활자본

書名	出版事項	版式狀況	一般事項	所藏處/所藏番號
註解 西廂記	王實甫(元) 原著, 丁九變 國譯, 吳台煥 發行, 京城(서울) 博文社 印刷, 光武10年 (1906)	不分卷 1冊, 216쪽, 新鉛活字本, 22.4×15.2cm, 四周雙邊, 半郭: 16.4×11.2cm, 14行26字, 紙質: 洋紙	本文에 諺社, 國漢文混用, 曲文 漢韓對譯本, 小序: 大韓光武八年 (1904)歲甲辰冬至日小圃丁九變書于楊洲直溪柏栗園小閣中 荳燈下, 刊記: 光武十年(1906)一月發行 京城 博文社 發行	國立中央圖書館 a13736-4
				韓國學中央研究院 D7A-1
				國會圖書館 812.4 ○338ㄸ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가람 895.12 W1847s
				成均館大學校 D07A-0006
				東國大學校 819.24 - 왕59入성
				東國大學校 慶州캠커스 D813.508-서51
				國民大學校 [고]822.4 왕01-3
				仁荷大學校 H812.35-제66
				圓光大學校 AN823.5-○488
東亞大學校 漢林圖書館 (3): 12: 2-89				
蔚山大學校 812.2 -김성탄				
慶尙大學校 古(춘추)D7 서51				

《註解西廂記》는 光武10年(1906)에 博文社에서 인쇄·발행하였는데, '1906년도에는 출판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한두 서관으로는 간행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웠기에 7개의 서관이 참여하여<sup>12)</sup> 발행하였다. 이 책은 丁九變이 역

12) 이기현, <舊活字本 《西廂記》 研究>, 《우리文學研究》제26집, 2009, 43-44쪽.

주를 하였고, 판권지를 보면 吳台煥이 인쇄자 겸 발행자로 되어 있다.<sup>13)</sup> 책의 끝머리에는 한문으로 쓰인 <西廂記小序>가 붙어 있는데, ‘大韓光武八年歲甲辰冬至日小圃丁九燮書于楊州直溪柏栗園小閣中葢燈下’라고 하였다. 이 ‘小序’는 활자본이 발행되기 2년 전인 1904년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1책으로 되어 있으며, 모두 216쪽인데 한자로 쪽수를 써놓았다. 책의 첫머리에는 <慟哭古人> · <留贈後人> · <聖嘆外書>가 연이어 실려 있는데, 모두 한글로 토를 달았다. 이어서 ‘題目總名’이 나오고 다음에는 ‘題目正名’이 나오고 나서 본문이 바로 시작된다. 본문의 科白은 원문을 모두 옮기고 현토를 달았으며, 곡문은 원문에 현토하여 쓰고 나서 칸을 나누고 한글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곡문의 곡패는 괄호로 묶어놓았는데, 예를 들면 ‘(仙呂)(賞花時)(夫人昌)’과 같이 되어 있다. 상란에는 작은 글자로 주를 달았는데, 곡문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백에 해당하는 것에도 주를 달았다. 또한 이 주석들은 한문 위주로 되어 있으나, 한글로 간단히 낱말풀이를 해놓은 것도 있다. 이 판본은 광범위하게 전국 각처의 도서관과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다.

위의 세 계열의 곡문 번역본은 모두 김성탄이 평점을 가한 《第六才子書西廂記》를 번역의 대상텍스트로 삼았다. 그런데 대략 18세기 이후 조선에 유입된 《西廂記》는 대부분이 바로 이 김성탄의 《第六才子書西廂記》이다.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西廂記》의 판본들은 거의 모두 김성탄 평점본 계열이며, 조선의 문인들이 남긴 관련 기록들도 대부분 이것을 대상으로 삼았다.<sup>14)</sup> 이 텍스트는 第5本을 《續西廂記》라고 이름 붙이고 수록하였지만, 김성탄은 본래 이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였다. ‘이 《續西廂記》의 네 편은 어떤 사람의 손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성탄은 본래 다시 실으려고 하지 않았다.(此《續西廂

13) 필자가 이용한 판본은 국회도서관 소장본인데, 국회도서관 사이트에서는 이 판본의 원문을 볼 수 있도록 해놓았다.

14) 민관동, <《西廂記》의 국내 유입과 판본 연구>, 《中國小說論叢》제31집, 2010, 137-162쪽. 민관동·유승현, 《韓國 所藏 中國古典戲曲(彈詞·鼓詞) 版本과 解題》, 학고방, 2012, 53-101쪽 참조.

記》四篇，不知出何人之手，聖嘆本不欲更錄。)’ 김성탄은 이렇게 속편을 사적으로 보았는데, ‘김성탄본 《서상기》의 절대적인 영향으로 인해 조선 독본 중 속편까지 수록한 이본은 소수에 불과하다.’<sup>15)</sup> 세 계열의 곡문 번역본은 이런 영향 때문인지 모두 속편을 수록하지 않았다. 이것을 제외한 공통점은 세 계열 모두 과백을 포함한 모든 원문을 옮겨 적고 곡문만을 번역한 대역본이라는 것이다. 또한 모두가 곡문과 과백을 포함한 원문에 주석이 달린 주석본이기도 하다. 물론 주석을 단 부분과 주석의 내용은 다소간 차이가 있기는 하다.

### 3. 각 계열의 번역 양상

윗글에서 곡문 번역본을 세 가지 계열로 나누고 각 계열의 해당 판본들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개괄하였다. 필사본의 경우, 같은 계열에 속한 판본이라도 본문 이외 서문이나 부가된 글들이 다른 판본들이 있다. 그러나 같은 계열일 경우 본문의 주석이나 곡문의 번역은 대체로 일치한다. 먼저 실제로 번역된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그 특징에 대해 논술하기로 한다.

#### (1) 순 한글 번역

仙呂賞花時夫人昌夫主京師祿命終서방님이경스의서록과명이마츠스니子母孤孀조식과어미외롭고홀노되여途路窮갈발이이운지라旅櫬나그네닐이在梵王宮범왕궁의잇서盼不到博陵舊塚막능옛되를바라보고가지못하니血淚灑杜鵑紅피눈물이부러두건쳐로복도다 .....

後鶯鶯唱可正是人值殘春蒲郡東허물며정히이사람이점은봄을포군동의나마스니門掩重關蕭寺中문을겹관소조현절가온디닷은지라花落水流紅꽃치저러저물의흘너블그니閑愁萬種한가현시름일만가지로無語怨東風말이업시동풍을원망허는도다. (국립중

15) 김효민, <朝鮮讀本 《西廂記》의 異本 실태 및 유통 양상>, 《中國語文論叢》제46집, 2010, 437쪽.

양도서관 소장본)

(2) 국한문 혼용 번역

仙呂 | 賞花時 | 夫人昌夫主 | 京師에祿命終호니子母孤孀途路窮이라旅櫬이在梵王宮호야盼不到博陵舊塚호니血淚 | 灑杜鵑紅이로다

夫主 | 京師에祿命이 못치니子와母 | 孤호고孀호야途路 | 窮호지라旅櫬이梵王宮의잇찌博陵舊塚을바라이르지못호니피눈물이뿌리여杜鵑의紅타호도다 ……

後 | 鶯鶯唱可正是人值殘春蒲郡東호야門掩重關蕭寺中호고花落水流紅호니閑愁 | 萬種이라無語怨東風이로다

마춤正히사람이殘호춘을蒲郡東에 만나서門을거듭關蕭寺中의가뤄고곳치써려져물의불근게호르니閑가호금심이萬種인지라말읍시東風만怨호난도다(서강대 소장본)

(3) 활자본

(仙呂)(賞花時)(夫人昌)夫主京師의祿命終호니子母孤孀이途路窮이로다旅櫬이在梵王宮호야盼不到博陵舊塚호니血淚灑杜鵑紅이로구다

난편이, 경스의, 록명으로, 종호니, 즈모고상, 이도로궁이로다, 여친이, 범왕궁의잇서, 보건디박능구총을니르지못호니, 혈루를뿌리년족족, 두견화가흥이로다 ……

(後)(鶯鶯唱)可正是人值殘春蒲郡東호니門掩重關蕭寺中이라花落水流紅호디閑愁萬種으로無語怨東風이로다

가정시인치잔춘포군동의, 문엄중관소사중이로다, 화락수목흥호데, 한수만중으로, 말읍시동풍만원망호도다(국회도서관 소장본)

이 세 가지 계열 번역본의 공통점은 모두 원문을 명기하고 나서 우리말로 번역한 대역본이라는 것이다. 서로 다른 점은 순 한글 번역본(이하 ‘한글본’으로 약칭)은 곡패를 따로 표시하지 않았으나, 국한문혼용 번역본(이하 ‘국한문 혼용본’으로 약칭)은 테두리선으로 활자본은 괄호로 곡패를 구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글본인 안동대 소장본은 이 부분이 낱질이지만, 남아 있는 下책을 보면 테두리선으로 곡패를 구분하였으므로 위의 차이는 한글본만

의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 다른 점은 한글본이 원문에 현토하지 않았으며 국한문혼용본과 활자본은 모두 원문에 현토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글본은 곡문 전체의 원문을 적고 따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구절이나 의미 단위마다 원문을 적고 바로 번역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한문혼용본과 활자본은 모두 곡문 전체의 원문을 현토하여 적고 나서 이에 해당하는 번역을 하였다. 그런데 한글본인 안동대 소장본은 곡문 전체의 원문을 적고 번역하였으므로, 국한문혼용본과 활자본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문 전체의 번역이나 구절 단위의 번역이란 차이도 역시 세 가지 계열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한글본과 국한문혼용본은 모두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는데, 활자본은 단어나 구절을 표점부호를 사용하여 끊어놓았는데 원칙도 없고 적절하지도 않아 보인다.

번역의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한글본은 경스(京師)·범왕궁(梵王宮)·박능(博陵)·포군(蒲郡) 등의 명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이에 비해 국한문혼용본은 원문의 한자를 그대로 쓰고 거기에 조사와 어미 등을 다는 수준에서 번역이 이루어졌으며, 거의 동사 정도만 우리말로 번역하였을 뿐이다. ‘夫主 | 京師에 祿命이 못치니 자와 母 | 狐 호 고 媯 호 이 途路 | 窮 호 지 라’ 예를 들면 이와 같은데, 실제로 번역한 것은 ‘終’의 번역에 해당하는 ‘못치니’밖에 없다. 활자본의 번역문은 한자를 섞어 쓰지 않고 한글로 되어 있지만, 국한문혼용본과 비슷한 방식으로 번역이 이루어졌으며 단지 한자어에 한글 발음을 달아놓는 식이다. ‘난편이、경스의、록명으로、종호니、즈모고상、이도로궁이로다’ 이 번역은 ‘夫主’에 해당하는 ‘난편(남편)’만을 번역하였을 뿐이고 나머지는 한자어에 조사와 어미를 붙였을 뿐이다. 또한 ‘즈모고상、이도로궁이로다’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은 표점부호가 잘못 사용되었으며 ‘즈모고상이、도로궁이로다’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활자본의 두 번째 번역 역시 원문의 한자어를 한글로 옮기고 현토한 정도인데, 명사가 아닌 ‘可正是’조차 ‘가정시’로 그대로 쓰고 있다. 세 계열을 비교해보면 한글본에 비해 국한문혼용본이나 활자본 모두 가독성이 떨어진다.

세 계열의 번역 특징에 대해 <前候>의 맨 처음 곡문을 서로 비교하면서 논의를 더 진행해보자. 이하의 두 번째 예문부터는 원문에 현토하지 않고 표점을 단 것을 제시하고, 각 계열의 그에 해당하는 번역만을 보도록 한다.

【仙呂·賞花時】(紅娘唱) 針線無心不待拈, 脂粉香消懶去添, 春恨壓眉尖。靈犀一點, 醫可病慳慳。<sup>16)</sup>

침선의마음이업서수뜻키를슬허호고연지분이어릉더릉호여도다시단장허기를기얼니허며봄한이눈섭싹희늘니여시니일점령헌마음이병더리피리허물늪곳칠고(안동대본)

鍼과線은마음이업서집고져아니호고脂와粉이香이살아져도가셔덜럼허기를게얼니호야春恨이눈섭부리의덥쳐시니靈犀한點이라야病의곳알픈거슬醫호여可호리로다(서강대본)

침선은무심호야, 잡기가슬고, 연지분이, 다져도, 더허기를게오리호니, 춘한이, 미침을덥흔지라, 영서일점이러야, 병이염염호물, 낮게홀가부다(활자본)

위의 예문들에서 세 계열 번역 역시 윗글에 제시한 각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첫 부분을 보면, 한글본은 ‘침선의마음이업서’로 되어 있는데 이 행위의 주체는 鶯鶯이기 때문에 조사의 사용이 비교적 적절하다. 이에 비해 국한문혼용본은 ‘鍼과線은마음이업서’로 활자본은 ‘침선은무심호야’로 번역하였는데, 모두 주격조사를 사용하여 침선을 주어로 삼았다. 중간 부분은 세 계열 간의 어휘상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가독성이 높은 편이다.

마지막 부분은 서로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글본이 ‘일점령헌마음이병더리피리허물늪곳칠고’로, 국한문혼용본이 ‘靈犀한點이라야病의곳알픈거슬醫호여可호리로다’로, 활자본이 ‘영서일점이러야, 병이염염호물, 낮게홀가부다’로 되어 있다. 여기서 ‘靈犀一點’에 대한 번역이 분분함을 알 수 있다. 김성탄 평점본을 대상텍스트로 삼은 세 계열의 번역본과 달리, 왕실보의 《西廂記》에는 이 부분이 ‘若得靈犀一點’으로 되어 있다.<sup>17)</sup> ‘若得靈犀一點’은 두 가지 뜻

16) 王實甫 原著, 金聖嘆 批點, 張建一 校注, 《第六才子書西廂記》, 台北: 三民書局, 1999, 193쪽. 윗글에서도 김성탄 평점본은 이 판본을 사용하지만 따로 주를 달지 않는다.

17) 王實甫 著, 張蕪瑾 校注, 《西廂記》,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8, 123쪽.

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靈犀’는 무소의 뿔인데 한약재로 쓰이므로 ‘좋은 약재를 좀 얻어야만’이라는 뜻이다. 둘째 의미는 무소의 뿔에는 한 줄기 흰 무늬가 양쪽 끝을 관통하는 것에서 유래하였다. 중국인들은 이를 특이하게 보아 사람들의 마음이 상통하는 것을 비유하게 되었다. 특히 남녀 간에 이심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을 형용할 때 자주 쓰인다.<sup>18)</sup> 이에 대해서 세계열의 번역본 모두 주석을 달았는데, 한글본은 ‘靈犀心能照物曰犀照’로, 국한문혼용본은 ‘靈犀謂心之相照如犀角之通天也’로, 활자본은 ‘靈犀一點卽張生一片心’으로 되어 있다. 한글본은 비교적 두 번째 의미에 맞게 번역되었고, 국한문혼용본은 첫 번째 의미로 번역한 듯하며, 활자본은 의미가 모호하다. 국한문혼용본의 주석은 《西廂記》의 語錄인 《艷夢謾釋》의 뜻풀이와 같은데, 그 뜻을 전혀 살리지 못하였다. 활자본은 ‘靈犀一點’을 ‘張生一片心’이라고 하였는데 그 뜻풀이조차 잘못되어 있고, 번역조차 한자독음을 달고 어미를 붙여놓은 데 지나지 않는다.

이어서 그 다음 부분인 ‘醫可病厭」’을 보면, ‘厭厭’은 병으로 지치거나 쇠약한 모양을 형용한다. 한글본은 이런 의미에 맞게 ‘병더러피리허물’이라고 번역하였고, 국한문혼용본이 ‘病的곳알픈거슬’이라고 하였는데 의미가 모호하며, 활자본은 ‘병이염염허물’이라 하여 한자독음에 어미를 붙여놓는 식으로 번역하였다. ‘醫可’는 치료하다는 뜻인데 중국어는 목적어를 동사 뒤에 취하기 때문에 세계열의 번역 모두 우리말 어순에 맞게 목적어를 앞에 두고 동사를 뒤에 해석하였다. 그런데 한글본은 이를 ‘누곳칠고’로 행위의 주체를 넣어 의역하였고, 국한문혼용본은 ‘醫허여可허리로다’라고 하였는데 한문에 현토하는 방식으로 부자연스럽게 번역하였으며, 활자본은 ‘낫게힐가부다’로 제 뜻에 맞게 번역하였다.

위에 제시한 예문들을 보면, 세 계열들 사이의 차이점이 비교적 현저하다. 번역된 곡문을 모두 비교할 수는 없으므로, 가장 마지막 부분의 번역을 비교하고 나서 각각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8) 왕실보 지음, 양희석 옮김, 《서상기》, 진원·三聯書店, 1996, 172쪽.

【鴛鴦煞】柳絲長咫尺情牽惹，水聲幽彷彿人嗚咽。斜月殘燈，半明不滅。暢道是舊恨連綿，新愁鬱結。

버들실이기니지척이정어쓰을니는듯하고물소리그으허니방불이스람이오열하는듯  
현지라빛긴달과쇠잔현등불이반반붉고찌지도아니허니옛서름과시근심이연면하고을  
결하는도다(안동대본)

버들실이긴거스咫尺의情을쓰을어다리음이오물쇠리그으흠은彷彿타사람의嗚咽흠  
이라빛긴달과쇠잔현등잔이半은붉어찌지 "도아니허니옛恨과시근심이연니허얼크리  
미치는도다(단국대본)

버들실이기니지척의정을써러내고물소리가그으허니방불이사람의목이미치도다지  
년달과반한등잔이반쯤발고찌지지아니헤데이전시름과시근심이쓰니다서울결허년구  
나(활자본)

別恨離愁，滿肺腑難淘瀉。除紙筆代喉舌，千種相思對誰說。

리별헌서름과써나는근심이피부이가득허여헛쳐삿기어려우니지필노후설을디신허  
지아니면천가지상스를누를디허여옴길고(안동대본)

別하는恨과離하는근심이肺腑의가득허여거울너삿기어려워서紙筆의옴겨서喉舌을  
디신허거니와千種이나相思흠을누를디허야말홀고(단국대본)

니별한써는근심이폐부의그득허여너삿기어려운지라지필말고후설노디신홀진디일  
천가지상스를누를디허여말을홀고(활자본)

앞서 언급하였듯이 세 계열 모두 속편을 수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문의【鴛鴦煞】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곡이다. 이 곡은 본래 하나의 곡인데 세 계열 모두 위와 같이 둘로 나누어 원문을 옮겨 적고 번역을 하였다. 《第六才子書西廂記》에서 김성탄은 앞서 나온 곡들에 이어 이 곡의 앞부분을 第十九節 뒷부분을 第二十節로 나누고 중간에 평어를 삽입하였기 때문에<sup>19)</sup>, 세 계열의 번역 본들 모두 이런 영향을 받아 하나의 곡을 나누어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앞의 예문에서 ‘활자본’은 표점부호를 사용하였는데 <賴簡>의 중간부분인【得勝令】부터 끝까지 표점부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sup>20)</sup> 그래서 위의 예문은 표점부호가 없는 활자본의 원문을 그대로 따랐다.

이 곡의 번역은 앞의 예문과는 다르게 세 계열이 모두 비슷하다. 앞부분은

19) 王實甫 原著，金聖嘆 批點，張建一 校注，《第六才子書西廂記》，台北：三民書局，1999，344-345쪽.

20) 丁九燮 역주，《註解西廂記》，博文社，光武10年(1906)，144-211쪽.

국한문혼용본이 한자를 섞어 쓴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세 계열의 번역이 거의 일치하고, 한글본과 활자본은 같은 번역에서 나온 것 같다. 국한문혼용본은 첫 구절과 다음 구절의 ‘柳絲長(버들실이긴거슨)’과 ‘水聲幽(물소리그윽흐은)’를 전체 문장의 주어로 삼았는데, ‘버들실이기니’·‘물소리그윽허니’라고 한 한글본과 ‘버들실이기니’·‘물소리가그윽허니’라고 한 활자본과는 다르다. 한글본과 활자본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한글본은 ‘오열흐는’·‘연면흐고’처럼 원문의 한자어인 ‘嗚咽’·‘連綿’을 그대로 쓴 반면에 활자본은 이것들을 ‘목이 미치도다’·‘쓰니다셔’인 순 한글로 번역하였다.

곡문의 뒷부분 번역 방식도 대체로 앞부분 번역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한문혼용본은 첫 구절을 ‘別흐는恨과離흐는근심(別恨離愁)’이라고 번역하였고, 넷째 구절을 ‘千種이나相思흠(千種相思)’이라고 번역함으로써 한문을 그대로 옮긴 어색함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비해 같은 부분의 한글본과 활자본의 번역은 거의 유사하다. 그런데 활자본의 첫 구절 번역은 ‘니별한씨는근심’이라고 하여 ‘니별(니별)’이란 오자가 보이고 그 뒤에 한(恨)이란 단어가 빠진 듯하다. 이것은 번역 상의 오류라기보다는 조판할 때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예문만으로 전체적인 번역의 특징을 논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번역의 특징은 반영하고 있다. 한글본은 번역 자체가 순 한글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유명사를 비롯한 명사들 이외에는 거의 모두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간혹 한자어를 그대로 쓰기도 하였지만, 오열(嗚咽)이나 연면(連綿) 같이 현재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다. 세 계열을 비교하였을 때, 한글본은 가독성이 가장 높은 판본이며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 아마도 역관의 번역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논거는 뒷글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국한문혼용본은 원문의 한자어는 번역하지 않고 대체로 그대로 썼으며 어떤 부분은 원문에 조사와 어미만 덧붙이는 형식으로 된 것도 있다. 번역이 이루어진 곳들도 한문을 그대로 번역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현대 독자들이 봤을 때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계열이기는 하지만, 한문에 능통하였던 조선의 지식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대로 쉽게 읽었을 수도 있다. 이 번역의 주체는 한문에는 능통하였지

만 중국 입말인 백화에는 능통하지 못하였던 문인으로 보인다. 활자본은 비록 한글로만 번역하였지만, 한자 독음을 적고 거기에 조사나 어미를 현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국한문혼용본과 별 차이가 없어서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번역은 한글본과 유사해지며 가독성이 높아진다. 丁九燮이 역주자로 되어 있는데, 자신이 직접 주를 달고 새로 번역하였다기보다는 여러 번역본들을 대상으로 편집한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활자본의 성격과 관련하여 뒷글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 4. 각종 《西廂記》 필사본과 곡문 번역본 출현의 문화적 배경

《西廂記》 필사본은 첫째 원문 전사본이 있는데, 원문만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 있는가 하면 또한 원문을 옮겨 적으면서 현토를 단 필사본도 있다. 둘째 원문을 옮겨 적고 한문으로 주해를 단 한문주해 필사본이 있다. 셋째 원문을 모두 번역한 완역본이 있는데, 이 역시 원문을 옮겨 적고 번역하였으며 현토를 달고 주해를 덧붙인 것들도 있다. 넷째 소설체 개역본이 있는데, 희곡적 형식을 거의 제거하고 한글로만 개역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섯째 곡문만 번역한 곡문 번역본이 있는데, 원문은 모두 전사하고 곡문에 대한 번역만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본 논문의 앞부분에서는 곡문 번역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지만, 그것의 문화적 의미는 다른 필사본들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필사본들의 수용과 유통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서 곡문 번역본의 특수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위의 《西廂記》 필사본들이 어떻게 유통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들은 지금까지는 거의 없다. 그런데 19세기 말에 조선을 다녀간 일본인의 글에서 그 당시에 《西廂記》의 한글 번역본이 세책점에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에서는 貫冊家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貸本屋과 비슷한 것이 있으며 거기에는 대개 언문으로 써어진 이야기책이 있다. 단지 조선인이 창작한 작품뿐만 아니라 《西遊記》, 《水滸傳》, 《西廂記》 등 중국의 소설을 언문으로 번역한 것도 많이 있다.<sup>21)</sup>

이 기록 이외에도 실제로 남아 있는 세책 대출 장부를 통해서도 《西廂記》가 세책본으로 유통되었음은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확인되는 세책 대출 장부는 모두 세책 고소설의 배접지로 재활용된 낱장 장부인데, 일본 동양문고본, 이화여대본, 연세대본, 고려대본 세책 고소설에서 대출 장부를 확인할 수 있다.'<sup>22)</sup> 이중 동양문고본 대출 장부에서는 廟洞 黃知事와 奉常寺前(毛橋 炭商) 崔相(尙)玉이 《西廂記》를 대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3)</sup> 그런데 이 세책 장부는 '결코 1905년 이후의 시점으로는 내려올 수 없다.'<sup>24)</sup> 그러므로 동양문고본 대출 장부에서 대출되었다는 《西廂記》의 세책본은 1905년 이전의 것이다. 또한 연대본 《현씨양옹쌍린기》의 대출 장부에서는 嚴復潤이 《서상기》 제六권을 대출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sup>25)</sup> 이를 보면 《西廂記》가 세책본으로 유통되었음이 확실한데, 하지만 그것이라고 특정할 만한 실제 판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세책으로 유통된 고전소설은 방각본이나 활판본 형태로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한글 필사본의 형식을 지니기 때문에'<sup>26)</sup> 세책본 《西廂記》도 한글 필사본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西廂記》가 조선에서 방각본으로 출판된 적이 없고, 활자본 《西廂記》는 1906년에야 초판이 발행되

21) 岡倉由三郎, <朝鮮の文學>, 《哲學雜誌》제7권 74호, 1893, 85쪽. 大谷森繁, <朝鮮後期の貫冊再論>, 《한국 고소설사의 시각》, 국학자료원, 1996, 155쪽에서 재인용.

22) 전상욱, <세책 총 목록에 대한 연구>, 《泂上古典研究》제30집, 2009, 166쪽.

23) 정명기, <세책본소설의 유통양상>, 《古小說研究》제16집, 2003, 91쪽.

24) 정명기, <세책본소설의 유통양상>, 《古小說研究》제16집, 2003, 79쪽. 이렇게 하한선을 정한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논문의 75-79쪽을 참조.

25) 정명기, <세책본소설에 대한 새 자료의 성격 연구>, 《古小說研究》제19집, 2005, 234쪽.

26) 전상욱, <세책 총 목록에 대한 연구>, 《泂上古典研究》제30집, 2009, 164쪽.

었는데, 이미 1905년 이전에 세책본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날짜별 대출 장부인 연대본 세책 장부에서는 제명을 《서상기》라고 하였는데, 한글 필사본이 아니라면 굳이 한글 제명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책본 《西廂記》는 한글 필사본임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원문을 병기한 대역 형식의 완역본이 아니라 소설체 개역본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

김효민은 《西廂記》의 소설체 개역본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넓은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가독성 높은 독본을 만들기 위해 의욕적으로 시도하였던 일종의 대중화 작업’<sup>27)</sup>이었으며, ‘개역을 거치면서 한층 더 매끄러운 독본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sup>28)</sup>고 하였다. 이들 개역본의 특징은 순한글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발문, 원문, 주해 등이 수록되지 않았다. ‘넓은 독자층을 염두에 둔 대중화 작업’은 그 텍스트가 상업적 이윤을 추구할 때 필요한 작업이다. 조선 시대에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영업 방식을 택한 사람들이 바로 세책업자들이다. 그리고 희곡이라는 장르적 특징을 제거하였던 이유는 조선의 일반 독자들에게 가독성 높은 텍스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설체 개역본인 ‘존경각본 1·2책 끝에는 각각 “차간 하문 분히하라(且看下文分解)”와 “차명 하문 분히하라(且聽下文分解)”라는 결어사가, 규장각본 1책 끝과 2책 <拷艷> 끝에는 또 각각 “츠간 흐회 분히하라(且看下文分解)”라는 어구가 적혀 있다.’<sup>29)</sup> 이 역시 세책본 고소설의 특징 중 하나인데, ‘각 권의 끝 부분에는 ..... 뒷이야기의 내용을 듣거나 또는 보라는 용어가 다양한 형태로 출현한다.’<sup>30)</sup> 그러나 이는 《西廂記》의 원문이나 기타 번역본들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세책본만의 특징적인 용어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소설체 개역본은 세책본과 거의 유사한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7) 김효민, <구한말 《西廂記》 국문 改譯本의 개역 양상 및 특징 - “존경각본”과 “규장각본”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통권84호, 2011, 174쪽.

28) 김효민, <‘이가원본’을 통해 본 조선후기 《西廂記》 한글번역의 수용과 변용>, 《中國語文學誌》제54집, 2012, 155쪽.

29) 김효민, <구한말 《西廂記》 국문 改譯本의 개역 양상 및 특징 - “존경각본”과 “규장각본”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통권84호, 2011, 151쪽과 157쪽.

30) 정명기, <‘세책 필사본 고소설’에 대한 서설적 이해 - 總量·刊所(刊記)·流通樣相을 중심으로>, 《古小說研究》제12집, 2001, 449쪽.

《西廂記》의 소설체 개역본이 바로 세책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책본을 전사한 필사본일 가능성이 있다. 규장각본 《서상기》는 필사가가 ‘大韓隆熙三年二月一日’로 되어 있는데, 필사를 완료한 시기가 1909년임을 알 수 있다. 이 필사본은 세책본 《서상기》와 제명이 유사한데, 1905년 이후에 필사한 것이므로 세책본을 전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세책본 《西廂記》는 대체로 6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더 많은 대여료를 받기 위해 책의 수를 늘이던 세책업자들의 영업 수단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세책본의 ‘글자수는 일반 필사본이나 방각본의 반도 안 되는 분량이다.’<sup>31)</sup> 그리고 세책본 독자의 불만 가득한 낙서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책 주인 들어보소, 이 책이 단권인 책을 네 권으로 만들고 남의 재물만 탐하니 그런 잡놈이 또 어디 있느냐?’<sup>32)</sup> 우선 세책본을 원전으로 삼아 전사하는 데는 책 빌릴 돈만 있다면 별 문제될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규장각본 《서상기》는 2권 2책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필사본이 바로 세책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세책본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순한글의 소설체로 개역한 4종의 개역본에 모두 김성탄의 서문이 실려 있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소설체 개역본은 기본적으로 한글만 아는 독자를 위한 판본이었을 것이다. 소설체 개역본의 모든 특징들이 세책본 고소설과 유사함을 볼 때, 이것이 바로 《西廂記》의 세책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세책업은 우선 많은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새로운 작품들을 계속 독자들에게 공급하지 않고서는 영업을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설의 대량 창작을 자극하게 되었다. 세책업자들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당대 대중들의 취향에 적합한 작품을 찾아 변형시켜 제작하려고 노력하였을 것이다. 세책본이란 유통매체는 장르, 문체의 변화를 요구하였을 것이다. 줄거리를 살리면서 자국의 언어와 전통적 문학관습에 낯설지 않도록 변개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西廂記》의 소설체 개역본이 탄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31) 이윤석·정명기 공저, 《구활자본 아담의 변이양상 연구(구활자본 고소설의 변이양상과 비교하여)》, 보고사, 2001, 112쪽.

32) 이민희, 《조선의 베스트셀러》, 프로네시스, 2007, 65쪽.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책본”들은 대략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엽까지 유통되던 작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sup>33)</sup> 그러므로 위의 논의는 19세기 후반 이후에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글소설체 개역류는 선행 완역본류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글 독자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로 과감하게 풀어쓰려고 한 노력이 두드러진다.’<sup>34)</sup> 세책본 소설들은 대체로 선행하는 판본을 베껴 썼기 때문에 《西廂記》 세책본도 선행하는 판본들을 대상으로 개작하였을 것이다. 이 선행 판본들이 김효민이 지적한대로 완역본 계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완역본 계열이 최초로 언제 번역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들을 필자는 아직까지 찾지 못하였다.

竹史主人은 자못 史書 모으기를 좋아하여 《水滸傳》·《漢演》·《三國志》·《西廂記》에 흥미가 있었다. 諺書 중에 볼 만한 것이 있으면 비록 서책이 규방의 은밀한 곳에 있어서 빌릴 수 없는 것이라도 어떠한 인연과 연고를 만들어 내어 그것을 빌려 왔다. 그런데 한 번 그것을 讀破한 然後 오류를 바로잡기로 결심을 하였다.<sup>35)</sup>

韓栗山은 생졸년이 미상이지만 조선 高宗 때의 문인으로 光緒二年인 1876에 이 글을 썼다(光緒二年丙子冬下瀚上黨後學韓栗山序). 예문에서 ‘諺書’라고 한 것은 한글 번역본을 말하는데, 이 당시에 《水滸傳》·《漢演》(《西漢演義》를 가리키는 것 같음)·《三國志》는 한글 번역본이 이미 있었고 방각본으로도 출판되었다. 그렇다면 《西廂記》의 한글 번역본도 있었을 것인데, 이것이 어떤 형태의 번역본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글을 쓴 것이 19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완역본이거나 소설체 개역본일 가능성이 높다. 예문을 보면, 竹史主

33) 정명기, <‘세책 필사본 고소설’에 대한 서설적 이해 - 總量 · 刊所(刊記) · 流通樣相을 중심으로>, 《古小說研究》제12집, 2001, 454쪽.

34) 김효민, <朝鮮讀本 《西廂記》의 異本 실태 및 유통 양상>, 《中國語文論叢》제46집, 2010, 464쪽.

35) 韓栗山, <壬辰錄序文>. 민관동·김명신 편저, 《中國古典小說 批評資料叢考 - 國內 資料》, 學古房, 2003, 156-157쪽에서 재인용. 원문의 표점부호는 필자가 달았으며, 번역은 약간 수정하였다. 竹史主人, 頗好集史水滸、漢演、三國志、西廂記、無不味翫。而以至諺冊中有可觀文, 則雖閨門之秘而不借者, 因緣貫來。然後一通, 然後以爲決心鑿錫。

人은 어렵더라도 언서를 빌렸다고 하였는데 단 하나의 번역본만이 아니라 빌릴 수 있을 만큼을 구해서 본 것 같다. 또한 예문에서 주목할 점은 ‘한 번 그것을 讀破한 然後 오류를 바로잡기로 결심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결심을 실행으로 옮겼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계열의 번역본을 빌려 읽고 그것을 기초로 자신이 직접 완전한 번역본을 만들려고 하였던 것 같다. 《西廂記》의 번역본도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완전한 번역으로 발전해나갔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세책본에서 시작하여 완역본으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오며 《西廂記》 번역본에 대해 논술하였는데, 이제는 유입 초기로 되돌아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西廂記》는 조선시대에 많은 판본들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었으며, 조선인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 《西廂記》는 조선에서 방각본이 출판되지 않았으므로 우선 그 원문의 독서는 중국에서의 수입에 의존해야 하였다. 조선시대 문인들이 《西廂記》 독서 관련 기록들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sup>36)</sup> 중국에서 수입된 판본들은 상당히 많았다. 먼저 중국 판본이 유입되고 나서는 필사에 의해 복제하는 방법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西廂記》도 다수의 원문 필사본이 남아 있다. 조선에서 유행한 《西廂記》는 방각본이 없는데, 이렇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원문 전사본이 필요하였을 것이며 실제로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필자는 토대연구를 수행하면서 여러 차례 경상도 지방 출장을 가서 《西廂記》 필사본들을 열람하였었는데, 번역본은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이 원문 전사본이었다. 지방에서는 서울에 비해 《西廂記》의 중국 印本을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원문 전사본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선에서 상당히 유행하였으며 어록이 남아 있는 《三國演義》·《水滸傳》·《西遊記》 중에는 원문을 모두 옮겨 적은 필사본은 없는 듯하다.<sup>37)</sup> 이에 비해 《西廂記》

36) 민관동·유승현, 《韓國 所藏 中國古典戲曲(彈詞·鼓詞) 版本과 解題》, 학고방, 2012, 59-69쪽 참조.

37) 민관동·장수연·김명신, 《韓國 所藏 中國通俗小說의 版本目錄과 解題》, 학고방, 2013, 27-163쪽 참조. 필자는 이 책에 실린 목록 중 필사본의 형태를 분석해 봤는데, 원문 전사본은 없는 것 같다.

는 이런 여타의 중국 장편소설에 비해 편폭이 짧기 때문에 필사로 원문 전체를 복제하는 것이 용이하였을 것이다.

원문 전사본 이외에 '조선 독본' 《西廂記》의 초기 형태가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嬌紅記》로부터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산군이) 전교하기를, “《剪燈新話》·《剪燈餘話》·《效顰集》·《嬌紅記》·《西廂記》 등을 謝恩使로 하여금 사오게 하라.”하였다.(《燕山君日記》62권, 연산군 12년(1506) 4월 13일)

일찍이 《重增剪燈新話》를 乙覽 하였었는데 ..... 또 '魏生'이 항상 내실에 있으면서 侍姬 蘭菖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嬌紅記》 한 권을 보았다 하였으므로 《嬌紅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내린 책이 바로 그 책이다. 앞서 下敎에 '으스한 집 죽창이 아직도 예와 같네(竹窓幽戶尙如初)'란 글귀도 역시 여기에 실려 있는데, 다만 漢語가 있어 해석할 수 없는 데가 많으므로 文字로 注를 달아 간행하였었다.(《燕山君日記》63권, 연산군 12년(1506) 8월 7일)<sup>38)</sup>

연산군은 사신을 통해 《嬌紅記》를 중국에서 사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예문) 이렇게 구해온 책을 소장하고 있었음(두 번째 예문)을 확인할 수 있다. 《嬌紅記》는 소설과 희곡 두 장르의 작품이 있으며 희곡으로는 다른 두 가지 작품이 있다. 소설 《嬌紅記》는 편폭이 길지 않은 단편으로, '《百川書志》外史類에 2권이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통용되고 있는 소설 《嬌紅記》는 《艷異編》·《國色天香》·《繡谷春容》·《情史類略》·《風流十使》·《燕居筆記》와 같은 소설총집에 두루 실려 있다.'<sup>39)</sup> 희곡으로는 明初 宣德年間(1426~1435)에 간행된 劉東生이 지은 《金童玉女嬌紅記》가 있고, 明末 崇禎11년(1638)에 孟稱舜이 지은 《節義鴛鴦塚嬌紅記》가 있다.<sup>40)</sup>

그런데 위의 예문만 가지고는 연산군이 구입을 명하고 나서 소장하였던 《嬌紅記》는 소설인지 희곡인지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소설연구자들은

38)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http://sillok.history.go.kr/>.

39) 이시찬, <원대 <교흥기>문제와 인물에 관한 소고>, 《중국어문학논총》제67호, 2011, 398쪽.

40) 李修生 主編, 《古本戲曲劇目提要》,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97, 150-151쪽과 336쪽.

소설로 희곡연구자들은 희곡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필자가 참고한 연구들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전까지 필자는 유보적인 입장에 있었는데, 최근 소설 《嬌紅記》는 중국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된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sup>41)</sup> 그런데 위의 인용문을 보면, 연산군이 소장하였던 《嬌紅記》는 단행본이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왜냐하면 단행본으로 출판된 적이 없는 작품을 사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소설총집에 실려 있는 많은 작품 중 한 작품만을 따로 떼어내서 새로 제본하고 그 책을 신하에게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단행본은 明初인 宣德연간(1426~1435)에 《金童玉女嬌紅記》라는 서명으로 출판된 판본이었을 것이다. 희곡의 다른 작품인 《節義鴛鴦塚嬌紅記》는 연산군 사후에 창작되어 출판된 것이므로 연산군이 아예 구입을 명할 수조차 없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또한 ‘漢語가 있어 해석할 수 없는 데가 많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단편 문언소설의 특징이 아니라 백화로 이루어진 희곡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嬌紅記》에 대한 얘기가 길어졌는데,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漢語가 있어 해석할 수 없는 데가 많으므로 文字로 注를 달아 간행하였었다’<sup>42)</sup>라는 대목이다. 여기서 漢語는 백화를 뜻하는 것이고, 특히 백화로 이루어진 곡문은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명하였을 것이다. 《西廂記》도 역시 백화가 많은 희곡 장르이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해독하기 위해서는 주석본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중국에서 수입된 《西廂記》의 초기 독자들은 그것을 중국에서 구해온 사신이나 역관 그리고 조선에서는 임금이나 관료들이었고, 그런 후에야 독자층이 점점 더 확대되었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문언에 능통하였을 테지만, 역관을 제외하고는 《西廂記》 해독에 있어서 백화라는 언어적 한계에 부딪혔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백화에 대한 주석이나 뜻풀이가 필요하였을

41) 劉葉秋·朱一玄·張守謙·姜東賦 主編, 《中國古典小說大辭典》,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1998, 462쪽.

42) 이런 명령이 있는 다음 한 달 정도 후(1506년 9월)에 연산군이 폐위되었기 때문에 왕명이 시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민관동·정영호, 《中國古典小說의 國內 出版本 整理 및 解題》, 학고방, 2012, 94쪽 참조.

것이고, 유입 초기의 《西廂記》 조선독본은 이런 형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남아 있는 《西廂記》 필사본들은 대부분이 19세기의 것들이므로,<sup>43)</sup> 이른 시기의 주석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였는지 단정할 수는 없다. 중국 출판본은 거의 모두 본문 밖에 공란이 있었으므로 그곳에 직접 주석을 달았을 수도 있으며,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적은 필사본의 공란에다 주석을 달았을 수도 있다. 또 다른 형태는 ‘西廂記語錄’처럼 아예 주해만을 모아 책을 만드는 것이다. <西廂記語錄>은 1919년에 翰南書林에서 목판본으로 다른 어록들과 합본하여 《註解語錄總覽》이란 서명으로 출판되었는데, 이전에 유통되던 여러 필사본의 내용을 집대성한 것이다. 그런데다 이 판본은 이전 필사본에 비해 주석의 분량이나 상세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 주석본의 형태를 논하기에 이 판본은 적절하지 않다. 이 판본 이전의 ‘西廂記語錄’은 모두 필사본인데, 대체로 《艷夢謾釋》이란 서명으로 되어 있어서 ‘艷夢謾釋類’로 통칭할 수 있다. 이 주석서들은 첫머리에 희곡 관련 용어와 곡조 이름을 설명하였으며, 내용면에서는 단순한 사전 성격이라기보다 《西廂記》를 위한 참고서의 성격을 띤다.<sup>44)</sup> ‘艷夢謾釋類’는 《西廂記》의 주석서이기는 하지만 그 원문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렇다면 ‘艷夢謾釋類’는 《西廂記》의 원문이 비교적 많이 유통되었을 때 만들어진 주석서일 것이다. 《西廂記》 원문에 주석을 단 것과 ‘艷夢謾釋類’의 선후 관계는 확정하기 힘들지만, 전자가 후자에 앞섰다고 보는 것이 비교적 논리적인 것 같다.

물론 ‘艷夢謾釋類’를 참고하고 원문을 전사하여 만든 주석서가 있기도 한데, 대표적인 것이 《後歎先生訂正註解西廂記》이다. 이 판본은 文漢命이라는 사람이 1885년에 쓴 서문이 실려 있고, 원문은 그대로 옮겨 적고 한글로 따를 달아 놓았으며, 등장인물의 대사나 창이 끝나는 부분마다 ‘集註’라 하여 주석을 달아 놓고 있다. 필자가 일독한 바로는 주석자는 중국 詩歌나 경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백화에 대한 주석들은 ‘程·朱’나 ‘三

43) 성호경, <한국문학의 중국희곡 수용 양상 연구>, 《中國戲曲》제9집, 2004, 160쪽.

44) 윤지양, <筆寫本 <西廂記語錄>의 分類 및 各 筆寫本의 特徵 考察>, 《中語中文學》제 50집, 2011, 105쪽.

國演義》·《水滸傳》·《西遊記》' 語類에서 나왔다고 한 것이 많다.<sup>45)</sup> 이를 보면, 《註解語錄總覽》 같은 책을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어록에 나와 있지 않은 백화에 대한 주석은 대부분 적절하지 못하다.<sup>46)</sup> 이 책은 '이전에 나온 서상기 주해서를 총망라하여 참고한 것'<sup>47)</sup> 같지만, 희곡에 대한 장르적 이해가 떨어지며,<sup>48)</sup> 백화에 능통한 인물의 주석서는 아닌 것 같다. 《後歎先生訂正註解西廂記》는 어록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주석서이지만, 19세기 후반의 것으로 초기 주석본의 형태와는 거리가 있을 것이다. 다만 백화에 능통하지 않은 지식인이 《西廂記》 주석본을 만들었다는 것을 지적해두며, 이를 뒷글에서 다시 한 번 상기하기로 한다.

《西廂記》의 유입 초기 주석본은 실물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였는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가장 근접한 형태의 것이 곡문 번역본으로 보인다. 뒷글에서 살펴보았듯이 세 계열의 곡문 번역본은 모두 원문을 옮겨 적은 주석본이다. 또한 활자본은 서명이 《註解西廂記》로 되어 있고, 필사본들 중에도 서명에 '註解'라는 단어를 첨가한 판본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 주석은 대체로 '艷夢謾釋類'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으며 비교적 충실한 편인데, 하나의 원류에서 나온 듯하다. '艷夢謾釋類'도 속편에 대한 주석이 없으며, 세 계열의 곡문 번역본도 모두 속편을 수록하지 않았다.

세 계열의 곡문 번역본 중에 한글본은 번역이 상당히 적절하며 또한 번역자의 희곡 장르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편이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안동대 소장본 모두 본문이 끝나고 '後序' 형식의 <集句>가 필사되어 있다. 필자는 이 <集句>를 보고 번역자가 백화에 상당히 능통한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45) 문한명 주해, 정용수 역주, 《後歎先生訂正註解西廂記》, 새미(국학자료원), 2006.

46) 김학주, <조선 간 《西廂記》의 주석과 언해>, 《조선시대 간행 중국문학 관계서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288-289쪽.

47) 문한명 주해, 정용수 역주, <해제: 서상기 비평의 흐름과 조선 후기 서상기 주해>, 《後歎先生訂正註解西廂記》, 새미(국학자료원), 2006, 783쪽.

48) 김학주, <조선 간 《西廂記》의 주석과 언해>, 《조선시대 간행 중국문학 관계서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298쪽.

我往常見<借廂>詩書經傳<驚艷>十餘年<上全>這般<上全>一天星斗煥文章  
 <寺驚>罕曾見<驚艷>不但字兒眞不但句兒勻<寺驚>意惹情牽<驚艷>正要手掌  
 兒上奇擊<借廂>眼皮兒上供養<上全>這筆尖兒<寺驚>分明錦囊佳句<上全>休  
 教淫詞<前候>我便<寺驚>院字深枕簟涼<借廂>更長漏永<琴心>一燈孤影搖書  
 幌<借廂>睡不能<酬韻>難消遣<驚艷>要看個十分飽<鬧齋>49)(국립중앙도서  
 관 소장본)

예문에서 안동대 소장본이 ‘上全’과 ‘上同’을 섞어서 썼을 뿐이고 나머지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완전히 일치한다. 위의 문장은 전체적으로 백화를 사용해서 썼으며, ‘字兒’·‘句兒’·‘手掌兒’·‘眼皮兒’·‘筆尖兒’에서 보듯이 ‘兒化’를 사용하였다. 한문에만 능통한 지식인이라면 위와 같은 문체로 글을 짓지는 못하였을 것이고, 더욱이 ‘兒化’를 사용하였을 리는 없다. 또한 원문에 현토를 달지 않았으므로 한문을 읽듯이 원문을 읽었다기보다는 중국어로 직접 읽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 보면 한글본의 번역자는 백화에 능통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는 역관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윗글에서 연산군은 《嬌紅記》에 ‘漢語가 있어 해석할 수 없는 데가 많으므로 文字로 注를 달아 간행하였다’고 하였다. 물론 이것은 《嬌紅記》에 대한 이야기이고 번역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임금의 명령에 의해 이것을 할 수 있는 관료들은 역관이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李相璜 같은 인물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는 1829년 문안사로 淸나라에 다시 다녀왔고, 1833년 영의정에 올랐던 인물이다. 李相璜은 司譯院의 도제조였기 때문에, 중국 패설의 수집에 있어서 그의 ‘눈에 들기 위한 역관들의 자발적 진상도 있었을 것은 분명하다.’50) 그는 패설

49) 편명은 편의를 위해 ‘<>’을 사용하여 표기하였으나, 원문에는 작은 글자로 되어 있다. 인용문은 원문의 문체를 알아보기 위해 제시한 것이므로 위에서는 번역을 병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번역은 다음과 같으며, 번역은 필자가 하였다. ‘내가 전에 자주 십여 년 간 詩書經傳을 보았는데, 이렇게 하루는 별이 문장을 밝혔다. 전에는 글자와 구절이 모두 감정을 이끄는 것을 드물게만 보았다. 마침 손에 들고 눈겨울 위에 공양하려고 하였다. 이런 붓끝은 비단 주머니의 아름다운 구절을 분명히 할 수 있으니 음란한 말이라고 하지마라. 내가 안뜰에서 깊이 자려고 하나 더욱 길게 빠져나간다. 등불 하나의 외로운 그림자가 책을 흔들어 잠들지 못하고 마음을 달래기도 어려워서 충분히 보려고 한다.’

50) 신상필, <서리·역관 계층 소설 관련 양상의 현실적 근거와 그 실제>, 《韓國漢文學研究》 제38집, 2006, 194쪽.

이면 장르를 가리지 않고 새로운 판본을 즐겨 보았다고 하였는데, 희곡인 《西廂記》도 아주 좋아하였다고 한다.<sup>51)</sup> 이를 보면 역관들은 자신들의 상관이나 고위관료들을 위해 자발적으로나 혹은 명령에 의해 백화로 이루어진 곡문을 번역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비해 국한문혼용본은 원문의 한자어는 번역하지 않고 대체로 그대로 썼으며 어떤 부분은 원문에 조사와 어미만 덧붙이는 형식으로 된 것도 있다. 번역이 이루어진 곳들도 한문을 그대로 번역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현토 역시 한문을 읽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달아 놓은 것이므로, 번역의 주체는 한문에는 능통하였지만 백화에는 능통하지 못하였던 문인으로 보인다. 중인 池圭植(1851~?)의 《荷齋日記》에는 ‘저녁밥을 먹은 뒤尹 소년이 《西廂記》를 가져와 語錄讀法을 물어서 등잔을 밀어 놓고 읽는 것을 가르쳤다.(夕飯後, 尹少年持西廂記來, 問語錄讀法, 因排燈教讀.)’<sup>52)</sup> 고 하였다. 백화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語錄’을 통해 《西廂記》를 향유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독서는 ‘語錄’에 없는 백화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한문혼용본은 《後歎先生訂正註解西廂記》의 주석자처럼 백화에는 능통하지 못하였지만 《西廂記》를 애호하던 지식인의 번역일 가능성이 높다.

환자본인 《註解西廂記》는 윗글에서 언급한대로 7개 서관이 참여하여 발행하였는데, ‘初版에 그친 것이 아니라 4판까지 간행하는 모습을 보인다.’<sup>53)</sup> 이 책은 丁九燮이 1904년에 序를 쓴 필사본을 토대로 吳台煥이 발행한 것이다. 이 역주자인 丁九燮은 正三品の 벼슬을 하다가 1906년에 ‘內部參書官’에 임명되었는데,<sup>54)</sup> 대한제국 시기의 고위 관료였다. 그가 쓴 서문은 보면 《西廂記》

51) 유승현·민관동, <朝鮮時代 中國戲曲의 受容 樣相 -《西廂記》를 제외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誌》제43집, 2013, 89-90쪽 참조.

52) 池圭植, 《荷齋日記》5 정유년(1897) 1월 10일, 한국고전종합DB. 《荷齋日記》는 경기도 陽根의 分院貢所의 貢人 池圭植이 1891년부터 1911년까지 약 20년 7개월 동안 쓴 일기이다.

53) 이기현, <舊活字本 《西廂記》 研究>, 《우리文學研究》제26집, 2009, 44쪽.

54) ‘正三品 丁九燮을 內部參書官에 임명하고, 學部參書官 鄭喬를 漢城師範學校長을 겸임케 하다.’ <日省錄>(光武 10年 1月 16日), <承政院日記>(光武 10年 1月 16日), <官報>(光武 10年 2月 13日).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재인용.

의 곡문을 번역한 이유를 알 수 있다.

《西廂記》16회가 …… 뜻이 통하지 않음에 이른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같은 시대 한 나라 안에서도 발음과 뜻이 같지 않은데, 하물며 천년 이상 인문이 변화하였으며, 演義의 구절은 그 당시의 방언이 아님이 없다. …… 마침내 약간의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여, 언문으로 번역하고 주를 달았다. 속어·일상적인 구어·회통하는 말 그리고 부연하는 말은 처음 읽는 사람들이 구절의 뜻을 알기 쉽게 하였다.<sup>55)</sup>

丁九變은 《西廂記》를 번역한 인물들 중 유일하게 신분이 확실한 사람인데, 관료 출신이므로 한문에 능통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丁九變은 《西廂記》가 구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독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이는 조선 시대 한문에 능통한 지식인들이 《西廂記》를 읽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어려움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註解西廂記》는 이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번역본이 바로 원문에 현토하고 주석이 달린 곡문 번역본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註解西廂記》는 ‘한문을 알지 못하는 독자층을 위해 주해한 것이 아니라, 한문적 소양을 지니고 있지만 시대가 많이 흘러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짐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풀이한 것임을 알 수 있다.’<sup>56)</sup> 이는 국한문혼용본의 효용과 같은데, 《註解西廂記》의 체제도 역시 이것과 일치한다. 그런데 丁九變은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여 언문으로 번역하고 주를 달았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그가 이전의 여러 가지 번역본이나 어록 등을 참고하여 번역하고 주를 달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글에서 분석한 것처럼 앞부분과 뒷부분의 번역 양상이 다른 것도 여러 다른 번역본을 참고하였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런데 丁九變은 《註解西廂記》의 상업적 출판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註解西廂記》가 ‘원래는 상업적 목적으로 편찬한 책이 아니지만, 오

55) 西廂十六回 …… 至若不通辭意則固宜矣。夫同時一國之內，語音字義，或有不同，況上下千百載人文屢變，且續辭演義之句節，無非其時方言也。…… 遂記若干所聞所見，諺繙而註增之，其俚語、常談、調戲而衍補者，爲初讀者，易識句趣。원문의 표점부호와 번역은 대체로 다음 논문을 따랐으며, 필자가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이기현, <舊活字本《西廂記》研究>, 《우리文學研究》제26집, 2009, 49쪽

56) 이기현, <舊活字本《西廂記》研究>, 《우리文學研究》제26집, 2009, 50쪽.

태환이 그 책에서 대중성과 상업성을 발견하고 이를 신식 인쇄법으로 발행한 것이다.<sup>57)</sup> 또한 오태환은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인 정구섭의 이름을 내걸고 텍스트의 권위를 부여하여 상업성을 높이고자 하였을 것이다. 《註解西廂記》가 상업적 출판물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보면 출판업자 오태환이 예상하였을 구매자들을 상정할 수 있다. 물론 한문을 아는 독자들이었음은 분명하고, 당시 이들은 일반 민중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책을 구매할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註解西廂記》의 판권지에는 가격이 나와 있지 않아 판매가를 알 수 없다. 그런데 '1913년 춘향전 계열의 활자본 이본들의 가격은 30~45전'<sup>58)</sup>이었으므로 《註解西廂記》의 가격은 대략 이보다 조금 낮았을 것이지만 가치는 비슷했을 것이다. '1920년대 노동자 하루 임금이 40~90전에 지나지 않았으니'<sup>59)</sup>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註解西廂記》의 가격은 노동자 하루 임금에 맞먹는 수준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최초의 활자본 소설이 1912년에 출판되었는데,<sup>60)</sup> 《註解西廂記》는 이보다 6년이나 이른 1906년에 출판되었다. 이때는 소설 같은 대중적 서적이 출판되기 이전이었으며, 활자본의 주종은 교과서이었던 때이다.<sup>61)</sup> 이런 상황에서 《註解西廂記》가 출판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고 있으며 한문을 아는 독자를 구매자로 예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註解西廂記》의 문화적 의미는 주석과 번역을 떠나 조선에서는 최초로 《西廂記》의 원문을 독자들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전까지 《西廂記》의 원문은 중국에서 수입한 판본과 필사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다. 중국에서 출판된 《西廂記》가 조선에 많이 유입된 것은 사실이지만 독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을 그대로

57) 이기현, <舊活字本《西廂記》研究>, 《우리文學研究》제26집, 2009, 51쪽. 吳台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 논문을 참조.

58) 이주영, 《舊活字本 古典小說 研究》, 월인, 1998, 58쪽.

59) 간호운, 《아름다운 우리 고소설》, 김영사, 2010, 100쪽.

60) 이것은 이혜조가 《춘향전》을 개작한 《옥중화》로 1912년 8월 27일에 출판되었다고 한다. 최운식, 《한국 고소설 연구》, 계명문화사, 1995, 120쪽.

61) 류준경, <독서층의 새로운 지평, 방각본과 신활자본>, 《漢文古典研究》제13집, 2006, 290-292쪽 참조.

옳게 적은 필사본들이 필요하였는데, 《註解西廂記》는 필사하는 수고를 덜어 줄 수 있었다. 《註解西廂記》는 꽤나 인기가 있었는지 4판까지 출판되었는데, 그 수요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주로 대여에 의지하던 유통 방식을 바꾸어, 《西廂記》의 전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註解西廂記》는 이렇게 독자층을 확대함으로써 또 다른 《西廂記》주해본이나 번역본의 생산도 자극하였다. 宋致興의 《西廂記諺抄》가 그것인데, 김효민은 ‘최초로 간행된 활자본 《서상기》와의 만남이 역자의 개역 작업에 일정한 동기를 부여하였을 가능성<sup>62)</sup>을 열어 두고 있다. 어쨌든 《註解西廂記》가 《西廂記諺抄》의 탄생을 자극하였는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宋致興이 《註解西廂記》를 주요한 참고 텍스트로 활용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註解西廂記》는 주석이나 번역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는 뒤로 하고, 원문과 주석을 제공하여 《西廂記》 전파를 확대하였으며 다른 번역본의 탄생에도 참고 텍스트로서의 활용되었다는 데서 출판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5. 나오며

조선 시대에는 중국 고전소설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줄거리와 관계없는 시나사를 빼버리고 번역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 중국 희곡은 역대로 노래인 曲이 위주였고, 《西廂記》도 曲이 중심이 되며 또한 스토리를 전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西廂記》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희곡 장르의 특징과 曲文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였지만, 이것이 쉽지 않음을 《西廂雙文傳》의 번역자는 밝히고 있다.

62) 김효민, <고려대 소장 《西廂記諺抄》의 번역 양상과 특징>, 《中國語文論叢》제54집, 2012, 207쪽. 《註解西廂記》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술은 이 논문의 207-211쪽 참조.

科白과 牌詞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 글을 알지 못하는테 어찌 그 뜻을 터득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일찍이 이것을 격정하여 이를 주석한 여러 판본들을 널리 모아가지고, 그 번거로운 것은 깎아내고 그 요점만을 가려내어 훈민정음으로써 번역한 것이다.<sup>63)</sup>

위의 예문은 《西廂記》를 읽는 데 있어 한자를 아는 조선 지식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려움을 대변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희곡 장르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구어체로 쓰인 곡문 해독의 어려움이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희곡 용어나 백화에 대한 주석과 곡문의 번역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곡문 번역본들이 바로 이런 필요에 실제적으로 부합하는 주해번역본이다. 이런 곡문 번역본 연구의 의의는 그것이 《西廂記》 유입 초기의 번역본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그래서 필자는 곡문 번역본을 세 가지 계열로 나누고 판본들의 구체적인 특징들과 번역 양상에 대해 논술하였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각종 《西廂記》 필사본이 생겨난 문화적 배경과 의미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실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필사본부터 논술하다 보니 시대적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다. 여기서는 필자가 상정하고 있는 시대 순으로 필사본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원문만 그대로 옮겨 적거나 또는 원문을 옮겨 적으면서 현토를 단 원문 전사본이 있다. 조선에서 《西廂記》가 무척 유행하였지만 방각본으로 출판된 적이 없어서, 원문을 보려면 중국에서 수입된 인쇄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西廂記》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웃돌았던 것 같고, 그래서 자국의 출판본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쉽게 복제할 수 있는 원문 전사본이 출현하였을 것이다. 둘째 원문을 옮겨 적고 한문으로 주해를 단 한문주해 필사본이 있다. 《西廂記》의 유입 초기 독자들은 임금 이하 관료들 그리고 한문을 아는 지식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한문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주석본이 필요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이 두 번째 형태의 필사본이 출현하였을 것이다. 셋째는 원문은 모두 전사

63) 김학주, <조선 간 《西廂記》의 주석과 언해>, 《조선시대 간행 중국문학 관계서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283쪽에서 인용.

하고 주석을 달았으며 곡문에 대한 번역만 이루어져 있는 곡문 번역본이다. 이는 주석본에서 발전한 형태인데, 주석만으로는 구어체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 힘든 곡문을 번역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 곡문 번역본은 완역본 탄생의 계기가 되었고 또한 참고 텍스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넷째는 완역본인데 여러 형식이 혼재한다. 원문을 옮겨 적고 번역하였거나 현토를 달고 주해를 덧붙인 것들도 있다. 완역본의 초기 형태는 한문을 아는 독자들을 위한 것도 있고, 한글만 아는 독자를 위한 것도 있었다. 이런 완역본들은 대체로 《西廂記》가 가진 희곡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후 소설체 개역본의 탄생에 저본이 되었을 것이다. 마지막 다섯째로는 소설체 개역본이 있는데, 희곡적 형식을 제거하고 한글로만 개역이 이루어졌다. 물론 한문을 아는 독자들도 읽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글만을 아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다. 소설체 개역본은 세책본 고소설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西廂記》는 세책본이 존재하였으니 이것이 소설체 개역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 參考文獻 >

- 王實甫 原著, 金聖嘆 批點, 張建一 校注, 《第六才子書西廂記》, 台北: 三民書局, 1999.
- 王實甫 著, 張燕瑾 校注, 《西廂記》,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8.
- 왕실보 지음, 양희석 옮김, 《서상기》, 진원·三聯書店, 1996.
- 丁九燮 역주, 《註解西廂記》, 博文社, 光武10年(1906).
- 간호윤, 《아름다운 우리 고소설》, 김영사, 2010.
- 고려대 중국학연구소, 《중국문학의 즐거움》, 차이나하우스, 2009.
- 문한명 주해, 정용수 역주, 《後歎先生訂正註解西廂記》, 새미(국학자료원), 2006.
- 민관동·김명신 편저, 《中國古典小說 批評資料叢考 - 國內 資料》, 學古房, 2003.
- 민관동·유승현, 《韓國 所藏 中國古典戲曲(彈詞·鼓詞) 版本과 解題》, 학고방, 2012.
- 민관동·장수연·김명신, 《韓國 所藏 中國通俗小說의 版本目錄과 解題》, 학고방, 2013.
- 민관동·정영호, 《中國古典小說의 國內 出版本 整理 및 解題》, 학고방, 2012.

- 이민희, 《조선의 베스트셀러》, 프로네시스, 2007.
- 이시찬, <원대《교홍기》문체와 인물에 관한 소고>, 《중국어문학논총》제67호, 2011.
- 이윤석·정명기 공저, 《구활자본 야담의 변이양상 연구(구활자본 고소설의 변이양상과 비교하여)》, 보고서, 2001.
- 이주영, 《舊活字本 古典小說 研究》, 월인, 1998.
- 최운식, 《한국 고소설 연구》, 계명문화사, 1995.
- 李修生 主編, 《古本戲曲劇目提要》,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97.
- 劉葉秋·朱一玄·張守謙·姜東賦 主編, 《中國古典小說大辭典》,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1998.
- 강동엽, <이기원 역주 《서상기》에 대하여>, 《淵民學志》제13집, 2010.
- 김학주, <조선 간 《西廂記》의 주석과 이해>, 《조선시대 간행 중국문학 관계서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 김효민, <‘이기원본’을 통해 본 조선후기 《西廂記》한글번역의 수용과 변용>, 《中國語文學誌》제54집, 2012.
- 김효민, <고려대 소장 《西廂記諺抄》의 번역 양상과 특징>, 《中國語文論叢》제54집, 2012.
- 김효민, <구한말 《西廂記》 국문 改譯本의 개역 양상 및 특징 - “존경각본”과 “규장각본”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통권84호, 2011.
- 김효민, <朝鮮讀本 《西廂記》의 異本 실태 및 유통 양상>, 《中國語文論叢》제46집, 2010.
- 大谷森繁, <朝鮮 後期の 貫冊 再論>, 《한국 고소설사의 시각》, 국학자료원, 1996.
- 류준경, <독서층의 새로운 지평, 방각본과 신활자본>, 《漢文古典研究》제13집, 2006.
- 민관동, <《西廂記》의 국내 유입과 판본 연구>, 《中國小說論叢》제31집, 2010.
- 성호경, <한국문학의 중국희곡 수용 양상 연구>, 《中國戲曲》제9집, 2004.
- 신상필, <서리·역관 계층 소설 관련 양상의 현실적 근거와 그 실제>, 《韓國漢文學研究》제38집, 2006.
- 유승현·민관동, <朝鮮時代 中國戲曲의 受容 樣相 -《西廂記》를 제외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誌》제43집, 2013.
- 윤지양, <筆寫本 <西廂記語錄>의 分類 및 各筆寫本의 特徵 考察>, 《中語中文學》제50집, 2011.
- 이기현, <舊活字本 《西廂記》 研究>, 《우리文學研究》제26집, 2009.

- 이창숙, <《西廂記》의 조선 유입에 관한 소고>, 《大東文化研究》제73집, 2011.
- 전상욱, <세책 총 목록에 대한 연구>, 《洙上古典研究》제30집, 2009.
- 정명기, <‘세책 필사본 고소설’에 대한 서설적 이해 - 總量·刊所(刊記)·流通樣相을 중심으로>, 《古小說研究》제12집, 2001.
- 정명기, <세책본소설에 대한 새 자료의 성격 연구>, 《古小說研究》제19집, 2005.
- 정명기, <세책본소설의 유통양상>, 《古小說研究》제16집, 2003.
- 정용수, <해제: 서상기 비평의 흐름과 조선 후기 서상기 주해>, 《後歎先生訂正註解西廂記》, 새미(국학자료원), 2006.
- 岡倉由三郎, <朝鮮の文學>, 《哲學雜誌》제7권 74호, 1893.

### < 中文摘要 >

《西廂記》自中國流傳於朝鮮以來，朝鮮人愛好至極，廣泛流行，因而產生各種抄本與譯本。抄本共有五種系列：其一原文傳抄本；其二註解本；其三曲文譯本；其四全文譯本；其五改譯本。該文先以曲文譯本為對象，將它分類為三種系列：其一將曲文都翻譯為韓語；其二以韓語與漢語混用翻譯；其三以鉛活字出版。該文探討此三種系列的獨具特點，且指出它們的共同特點，即是註解本。然後探討五種系列抄本的產生背景。朝鮮時代《西廂記》刻本在國內沒出版過，因此其閱讀都靠從中國傳入的印本，也許需求超過供給，因而出現原文傳抄本。《西廂記》科白與唱詞都以白話寫成的，朝鮮人雖具閱讀文言的能力，但不太瞭解白話，因而出現註解本。朝鮮人雖可以參考註解本，但閱讀唱詞仍不容易，因而出現曲文譯本。《西廂記》愈廣泛流行，讀者階層愈擴大，因而為不懂漢語的人產生全文譯本。朝鮮末期出現改譯本，此改譯本將戲曲改寫成小說，其文類與形式都類似朝鮮貫冊古小說，此改譯本也許是貫冊家為營利產生的。

關鍵詞：《西廂記》、曲文譯本、原文傳抄本、註解本、全文譯本、改譯本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3. 9. 30.	2013. 11. 11.	2013. 11. 21.	2013. 11. 26.	2013. 11. 30.